

위기의 교대...합격선·경쟁률 하락

광주·부산·전주교대 등 6개 대학 2023학년도 정시 결과 분석 학령인구 감소로 교사 신규채용 급감...정부, 교대 정원 감축 나서

전국 6개 교육대학교의 정시 합격선이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신규 교사 채용 규모도 줄이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러한 하락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3학년도 입시 결과를 공개한 광주교대, 부산교대, 전주교대, 진주교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등 6개 교육대학교의 정시 합격선이 전년도에 비해 모두 떨어졌다.

전주교대는 수능 자체 환산점수 기준으로 합격선이 2022학년도 790.36점, 2023학년도 765.36점으로 25점이나 하락했다.

춘천교대는 합격선이 19.42점, 전주교대 12.39점, 부산교대는 남녀 각각 7.13점, 7.41점, 광주교대 3.5점,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는 0.45점 낮아졌다.

대학별로 백분위 평균점수나 수능자체환산점

수, 자체표준점수 환산점수 등을 기준으로 삼아 합격선을 공개했다. 서울교대, 경인교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등 수도권 교육대학교들은 입시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수시와 정시 경쟁률도 일제히 하락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전국 13개 교대(초등교육과 포함) 수시 경쟁률은 2022학년도 평균 6.1대 1(2459명 모집에 1만5057명 지원)에서 2023학년도 5.2대 1(2467명 모집에 1만2811명 지원)로 낮아졌다. 정시 경쟁률은 2.4대 1(2182명 모집에 5184명 지원)에서 2.0대 1(2182명 모집에 4280명 지원)로 모두 하락했다.

교대는 2019학년도에는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한 곳도 일부 있었으나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 환경이 변하면서 인기도 예전만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전일 2027년까지 초·중·고교 신규교원 선발규모를 지금보다 20~30%가량 줄이는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하면서 교대 인기는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향후 초등교사 채용 축소 등의 영향으로 금년도 9월부터 시작하는 수시 경쟁률에도 하락요인이 발생했다"며 "문과 우수 인재들이 지원하는 패턴도 변화돼 합격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대총장협의회와 논의해 다음 달 중으로 교대 정원 감축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르면 당장 내년부터라도 정원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교대 쪽에선 구성원 설득에 시간이 걸린다면 내색을 보여 감축 시기는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2006년 6224명에서 매년 줄어들던 교대 정원은 2012년 3848명에서 멈췄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영광·순천 6개 중학교, 남녀공학으로 전환

학령인구 감소 대응·통학거리 불편 해소...내년 신입생부터

영광과 순천지역 6개의 단성 중학교가 학령인구 감소 대응과 통학거리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영광지역의 영광중과 영광여중·해동중학교 등 3개 학교가 내년 3월 1일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됨에 따라 학생들이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24억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화장실·탈의실 등 변경 공사가 진행 중이다.

3개 학교 학생 규모는 영광중 189명, 영광여중 363명, 해동중 190명이다. 이 중 영광여중은 교명 변경을 위해 지역인 공모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면 여학생의 경우 인근 거리에 남아 중학교가 있어 먼거리로 배정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순천의 이수중·동산여중도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순천교육지원청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순천여중은 남녀공학 전환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학생·학부모·동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교육청은 순천지역의 경우 순천여중을 제외한 2개의 학교는 당초 2025년 3월 1일자 전환이 목표지만 내년에 바뀔 수 있도록 적절성 심사를 서두를 계획이다.

현재 전남지역 중학교는 225개교(분교 5개교 포함)로 이 중 단성학교는 45개교(남중 22개교·여중 23개교)이다. 도 교육청은 내년에 전환되는 5개의 중학교를 제외하고 나머지 40개교도 조속히 남녀공학으로 전환 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 등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남녀공학 전환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 할 수 있으며 먼거리 배정 등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학습에 대한 경쟁 효과도 있어 단성학교의 경우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지역 중학교 전체가 남녀공학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단성학교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동문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동신대, 우수지역 인재 양성 발전기금 명예의 전당 제막식



동신대학교(총장 이주희)는 최근 중앙도서관 1층 로비에서 '발전기금 명예의 전당 제막식'을 개최했다.

해인학원 김필식 이사장과 동신대 이주희 총장, 송경용 대외협력부총장, 전진 교학부총장, 주요 보직교수, 현진환 총학생회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동신대학교 명예의 전당'은 우수 지역 인재 양성을 향한 기부자들의 소중한 뜻을 기리고 지역사회에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대학 중앙도서관 1층에 설치됐다.

개교 30주년이었던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일정 금액 이상을 기탁한 개인과 단체의 이름을 동판에 새겨 부착했다.

동신대 이주희 총장은 "발전기금 기부자들의 소중한 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인재 양성과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교육청, 학교응급심리지원단 구성 지원

교육지원청 Wee센터 중심...학교 생명 안전망 구축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담양리조트에서 응급심리지원단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심리적 응급처치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전남교육청이 교육지원청 위(Wee)센터를 중심으로 학교응급심리지원단을 구성해 학생 자살 사망 등 학교 위기 사안에 대한 응급심리 지원을 강화한다.

학교응급심리지원단은 학교 위기 사안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교직원들을 선별해 위기 확산을 방지하고, 학교가 신속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 교육청은 담양리조트에서 응급심리지원단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심리적 응급처치(PFA, Psychological First Aid)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 응급심리지원에 대한 사례 중심의 해법을 제공함으로써 위험에 노출된 학교구성원에 대한 심리적 응급처치 실무능

력을 키워준다는 방침이다.

박정애 전남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장은 "이번 연수가 학교 위기상황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며 "학교응급심리지원단과 함께 탄탄한 학교 생명 안전망이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동강대, 스마트가게 컨설팅 돕는다

창업보육센터 더드림메이커스, 스마트오더·키오스크 설치 등 지원

"스마트오더나 키오스크 설치 등 스마트가게, 무료로 도와드려요."

동강대학교 창업보육(BI)센터 입주기업인 ㈜더드림메이커스(THE DREAM MAKERS)가 소상공인의 스마트상점 컨설팅을 돕는다. ㈜더드림메이커스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년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업체로 선정돼 관련 컨설팅(1544-1792)을 무료로 진행한다.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사업은 보건업이나 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광고TV(메뉴보드), 스마트오더, 테이블오더, 키오스크 등 도입 비용을 공급가격 최대 80%, 500만 원까지 정부가 지원한다.

예를 들어 A음식점이 6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키오스크와 노트북을 구입하려고 할 때 정부로부터 480만원을 지원받고 소상공인은 12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에 ㈜더드림메이커스가 승인 받은 제품은 '짜요짜 스마트오더'와 '짜요짜 태블릿 POS', 광고 TV, 노트북 등 13개 품목이다.

㈜더드림메이커스의 이길범 대표는 "짜요짜 스마트오더"는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결제가 가능해 소비자는 10% 할인 혜택을 받고 소상공인의 경우 약 20%의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더드림메이커스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로 선정됐다.

최근 광주서구청과 함께 총 6억 원 규모 사업비로 중기부 '동네상권발전소' 공모사업에 1차로 선정돼 급호 1등 먹자골목에 광주서구청의 첫 번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길범 대표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권 르네상스, 특성화시장 육성, 시장경영 패키지지원 등 정부공모 사업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더드림메이커스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호남권 최초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전용 쇼핑몰을 허가받은 '디페이샵(www.dpayshop.co.kr)'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4월 공식 오픈해 농축수산물, 가전·디지털, 생활·주방용품, 건강식품, 반류동물류 등 3천 개 이상의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디페이샵'에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할 경우 추가 15% 할인과 전통시장과 동일한 소득공제 4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프론티어벤처 | KIBO | 02-5090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